



“패기의 팀에서 성숙한 팀으로

남기일 광주FC감독 올해는 어떤 기적 선물할까 선수들과 함께 배우며 바닥부터 다질 것

매년 새 팀을 꾸리고 있는 지도자, 광주 FC의 남기일 감독의 이야기다.

2013년 8월 감독 대행으로 고향팀 광주의 지휘봉을 잡은 남 감독은 2014년 겨울 기적 같은 승격을 펼치면서 K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광주에 승격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 준 그는 2015시즌 대항 쏘리표를 떼고 자신 만의 색을 칠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돌아온 클래식 무대에서 경쟁한 팀들을 상대로 패기 넘치는 승부를 펼치며 광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심었다. 우리의 시선을 뒤로하고 잔류라는 큰 일도 이뤄냈다.

2014시즌을 준비하면서 남 감독은 뼈를 깎는 선수단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팀 재정상 33명이었던 선수단 규모를 28명으로 줄이고 7명을 제외하고 모두 새 얼굴로 팀을 꾸렸다. 재창단에 가까운 변화 속에 그는 승격을 이뤘고, 잔류에도 성공했다. ‘남기일 색’이 갖춰질 만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색을 다시 칠하고 있다. 아니 ‘칠해야 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승격과 잔류’의 역사를 합작했던 이들이 대거 팀을 떠났다. 임선영(MF)·제종현(GK)·안영규(DF)·정준연(DF)이 군인 신분이 됐고, 광주를 대표하던 김호남(MF)은 제주 선수가 됐다. 지난 3일부터 광양에서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공백이 있다.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선수는 훈련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 베테랑 수비수 이종민·송승민(FW)·이찬동(MF)의 모습을 광양에서 볼 수 없다. 자의 반 타의 반 베스트 11을 새로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열심히 달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남기일 감독은 의연하다. 지난 시즌은 지우고 새 판을 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흔들릴 수 없는 사령탑이다.

남 감독은 “이런 과정은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이 같다. 스쿼드 문제가 가장 크지만 부딪히면서 광주만의 축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수들의 발전한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스승답게 바닥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광주의 퍼즐을 맞춰 가면서 더 단단한 팀을 만드는 게 그의 목표다.

남 감독은 “처음 사령탑을 맡았을 때는 멋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알고 하니 더 어렵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다”며 “올 시즌 목표는 잔류를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니라 클래식 리그에 안착하는 팀을 만드는 것이다. 경험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안정감 있는 팀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겉잡는 질주, 패기의 팀으로 통하는 광주가 성숙함을 더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 남 감독의 이야기다. 그 구상의 카를 쥐고 있는 것은 베테랑이다. 그래서 요즘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베테랑 영입이다. 외부 영입과 함께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광주만의 선수 만들기. 현재 광양 캠프에는 올 시즌 K리그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루키와 테스트 선수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남 감독은 “신인들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체력적인 부분에 신경 쓰고 있고, 미팅을 통해서 전술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며 “매년 쉽지 않았지만 선수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나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 배움을 주는 지도자, 감동을 주는 광주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감동 주는 ‘광주FC’ 만들겠다”

또... 마린 벽에

정현, 테니스 3번째 대결서 패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0·삼육중권후원)이 또다시 마린 칠리치(13위·크로아티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세계 랭킹 51위 정현은 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총상금 40만4천780달러)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칠리치에게 0-2(5-7 6(3)-7)로 분패했다.

지난해 칠리치와 두 차례 만나 모두 졌던 정현은 세 번째 맞대결에서 설욕을 벌였으나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정현은 지난해 칠리치와 두 번 맞대결에서 모두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까지 치르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도 정현에게 기회가 있었다. 1세트 게임스코어 2-2에서 칠리치의 서브 게임을 먼저 따낸 것이다. 그러나 정현은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곧바로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렸고 결국 5-7로 1세트를 뺏겼다. 2세트에서 정현은 게임스코어 2-5로 끌려가다가 상대 서브 게임을 따내며 다시 한 번 승부를 타이브레이크로 몰고 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타이브레이크 2-2까지 접전을 이어가다 연달아 2실점 한 정현은 이때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1시간47분 접전 끝에 패했다.

/연합뉴스

“U-23 모의고사는 수비 점점”

신태용호 오늘 사우디 평가전 후 내일 카타르 입성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신태용호가 두 번째 모의고사를 치른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훈련 중인 신태용호는 7일(한국시간 23시20분)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을 연다.

23세 이하 대표팀의 역대전적은 5전3승 2무로 한국이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는 결코 만만

한 상대는 아니다. 지난해 1월 오만에서 열린 AFC U-22 챔피언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한국은 준결승에서 이라크에 패한 데 이어 3-4위 결정전에서도 요르단에 무릎을 꿇어 4위에 머물렀다.

카타르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예선에서도 중동세의 약진이 예상되는 만큼 리우네 자네이루 올림픽 티켓을 노리는 한국으로선 이날 평가전이 실전감각을 끌어올리는

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4일 열린 UAE와의 1차 평가전에서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해 베스트 멤버들을 후반에 투입하는 변칙적인 선수 기용을 하고도 이영재(울산 현대)와 황희찬(잘츠부르크)의 득점에 힘입어 2-0의 승리를 거뒀다.

신태용 감독은 “평가전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다. 숨길 것은 숨겨야 한다”면서 2차 평가전에서도 총력전 대신 전술 점검에 무게를 둘 방침을 천명했다.

신 감독은 UAE와의 평가전에선 경기 초반 4-3-3 전술을 쓰다가 4-1-4-1 전술로 바꾸고, 후반 중반부터는 4-4-2 전술로 변화하는 등 다양한 전술을 가동했다.

신 감독은 이번 평가전에서 수비진의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에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UAE와의 평가전에서 한국은 상대방 공격수에게 순간적으로 뒷공간 침투를 허용해 수비진이 무너지는 장면을 수차례 내보냈다. 신 감독도 탄탄한 수비가 자신의 철학인 공격축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가전에선 다양한 수비진의 조합을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

신태용호는 2차 평가전을 통해 실전감각을 끌어올린 뒤 8일 결전의 땅인 카타르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한국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4일(현지시간) 두바이의 알사범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UAE와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니퍼트, 6년 연속 두산 유니폼

30만달러 삭감된 120만 달러 계약



외국인 투수 터스틴 니퍼트(35·미국)가 6년째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한국프로야구 마운드에 오른다.

두산은 6일 “우완 정통파 투수 니퍼트와 연봉 120만 달러(약 14억 4천만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1년 처음 한국프로야구 무대를 밟은 니퍼트는 6년 연속 두산 마운드를

지키게 됐다. 다만 연봉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부진한 성적 탓에 15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준 금액에 도장을 찍었다.

니퍼트는 KBO리그에서 다섯 시즌을 보내는 동안 127경기에 등판해 단일팀 외국인 선수로는 최다인 58승(32패)을 거두고 평균자책점 3.47을 기록하며 두산의 에이스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 기간 외국인 선수 가운데 최다인 768.1이닝을 소화했고, KBO리그 최다인 73차례의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도 달성했다.

시즌이 끝나고 두산과 니퍼트는 재계약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두산은 정규시즌에서 부진으로 몸값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봤고, 니퍼트는 포스트시즌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쉽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5일 KBO에 니퍼트를 재계약 대상선수로 통보한 두산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 니퍼트의 에이전트에게 재계약 최종안을 보내놓고 답을 기다려 왔다.

결국 두산은 오는 15일 호주 시드니로 스프링캠프를 떠나기 전 에이전트 니퍼트와 재계약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전남, 크로아티아 공격수 유고비치 영입

빠른 패싱력·노련미 겸비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공격력 강화를 위해 ‘크로아티아 콤비’를 구성했다.

전남 드래곤즈가 6일 오르샤(FW)와 한 솔밭을 먹었던 크로아티아 공격수 유고비치를 NC 리에카로부터 1년 임대로 영입했다.

NK 리에카의 부주장인 유고비치는 한 박자 빠른 패싱력과 노련미를 겸비한 플레이로 공격형·수비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정확한 크로스와 뛰어난 측면 돌파력을 겸비하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활약을 가능하게 한다.

NK 오시예크를 통해 프로에 입단한 유고비치는 2011-2012시즌까지 105경기에 나와 8골 5도움을 기록했다. 2012-2013시즌 NK 리에카로 이적한 뒤에는 98경기에 출전해 7골 15도움을 올렸다. 유고비치의 활약 속에 팀은 리그 1~2위를 달리고 있고, 또 최근 3년간 유로파 리그에 출전하기도 했다.

유고비치는 “오르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나는 중앙미드필더와 윙어뿐만 아니라 어느 포지션이든 풀 빌드가 되어 있다. 전남이 좋은 능력을 가진 팀인 만큼 전남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고비치는 6일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해 전남 선수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김여울기자 wool@



‘18세’ 이승우 바르샤와 정식 프로 계약

이승우(18)가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에서 풀려난 바르셀로나(이하 바르샤)와 정식 프로 계약을 맺는다.

스페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만 18세가 되는 이승우는 바르셀로나와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3년6개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는 계약 후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인 후베닐A에 등록될 예정이다. 앞서 백승호도 후베닐 A에 등록됐다.

후베닐A에 등록되면 구단의 판단에 따라 성인 2군인 바르셀로나B나 1군에서 뛰 수도 있다. 이승우가 다음 시즌에는 1군 데뷔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일 출국한 이승우도 이번 시즌 후베닐A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바르셀로나B에서 출전 기회를 얻고 싶다



는 희망을 밝힌 바 있다.

이승우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들의 외국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징계기간 소속팀에서 훈련이나 경기에 나갈 수 없었던 이승우는 국내에서 훈련해 왔다.

/연합뉴스